

“정신이 드셨습니까?”

몽롱한 정신 속에서 밝은 빛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부드러운 실타래를 묶어 놓은 듯 한 목소리가 귀를 간질였고, 나는 천천히 눈을 뜰 수가 있었다. 처음으로 보인 것은 하얀 색이었다. 그저 하얗고 하얀 공간은 이질감이 들다 못해 묘한 불쾌감까지 들게 만들었다. 하얀 색으로 가득한 공간에 유일하게 색을 지닌 것은 나와 의문의 남성이었다.

순수함 그 자체로 하얀 공간과 대비되는 칠흑같이 어두운 남자이다. 머리부터 신발까지 어둡으로 일관한 남자는 나를 보며 싱긋 웃고 있었다.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음에도 상당한 미남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깔끔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긴 어디죠?”

“지옥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지옥. 정확히는 살리는 쪽에 가까운 곳이지만요.”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별 생각 없이 잡은 손은 장갑을 끼고 있음에도 차갑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가 살짝 힘을 주니 인형을 들어 올리듯이 몸이 붕 떠올랐고 어느 순간부터 서 있게 되었다.

“근데... 지옥이라뇨? 몰래 카메라인가요?”

“아직 인지하지.. 아니, 기억을 잃으셨군요. 20XX년 5월 19일 오후 3시 28분 15초 당신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온 것이죠.”

“꽤 철저한 몰래 카메라네요. 이런 세트장도 다 있고.”

내 반응은 정상적이었다. 아무리 신기한 공간이어도 다짜고짜 죽었다고 말하는데 누가 덤석 믿을 수 있을까? 나 역시 믿지 못한 채 출입구나 카메라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안타깝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살짝 손가락을 까딱였고, 영화에서 나올 법한 허공에 생겨난 스크린을 하나 보여주었다. 그 작은 화면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사람이 가득하였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몽롱했던 머리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듯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보인 시체의 얼굴은 내 얼굴과 똑같았고, 그제야 기억할 수가 있었다. 나는 5월 19일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으나 죽었다. 아마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한 것 같다.

“웁!”

“어이쿠.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곳은 저승입니까?”

“지옥이라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지옥.”

“그런거 처음 들어보는데.”

“죽은 사람한테 뭐가 있는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싱긋 웃으면 말하는 남자는 묘하게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였다. 그는 안내를 해주겠다면 하얀 공간을 천천히 걸어갔다. 이곳이 지옥이라면 저 남자는 나와 같은 처지거나, 악마일 것이다. 아니 저렇게 태연한 것을 보면 악마라고 확신해도 되겠지. 아무튼 조금 꺼림직한 존재였지만 이곳에 혼자 있는 것이 더 두려웠다.

발소리도 조금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은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괜한 불안감이 계속 해서 생겨나니 죽었음에도 죽을 것 같았다. 비록 악마지만 아마 이 남자가 없었다면 이미 쓰러졌을 지도 모른다.

“근데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비극적인 뜻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흠... 간단히 말해 일종의 게임 같은 겁니다. 당신 같은 특별 케이스만이 얻을 수 있는 기회죠. 뭐 이게 기회가 될지 또 다른 절망이 될지는 본인에게 달렸지만 말이죠.”

그는 스산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조금 빨리 하였다. 그 이후로도 더욱 깊숙이 질문했지만 미꾸라지처럼 자연스럽고 질문을 회피하였다. 눈앞의 악마는 그저 이 행위가 게임일 뿐이고, 나는 그 참가자라고 말하였다.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 우리는 걷고 또 걸은 후 마침내 어딘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처음으로 보인 형태를 가진 무엇인가는 문이었고, 그 문은 들어가기 꺼림칙하게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악마는 손잡이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내게 물었다. 그의 눈은 마치 반반 나뉜 것처럼 한 쪽은 비극의 눈동자를 다른 한쪽은 희극의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은 포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포기하면 당신은 복수할 기회를 저버릴 것이고,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수라면...?”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죠.”

악마는 아까처럼 작은 스크린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스크린의 인물을 본 순간 마치 심연에 빠진 듯이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고,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얼굴을 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했던 짓을 잊을 수가 있을까? 부러질 듯이 짝깨문 치아 사이로 붉은 피가 주룩 흘러내렸다.

악마는 내게 말한다. 이 게임을 포기한 재판에서 나는 확실히 천국행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천국에 간 순간 더 이상 복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복수를 하면 지옥행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니 이곳이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특별하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께서도 함부로 건들일 수가 없는 곳. 무슨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는 곳이라고 말한다. 악마는 내게 맹세했다. 이곳에서만

복수가 가능하고, 이곳에서만 들키지 않는다고.... 답은 순식간에 정해진다.

나는 스스로 문을 열었다. 그곳은 마치 호화로운 저택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비록 하얗지만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커다란 TV가 놓여 있었고, 카펫이 깔린 바닥에는 두 남자가 쓰러져있었다.

“그런 참가자들을 깨우겠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자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깜짝 놀란 나는 다급히 귀를 막았고, 바닥에 누워있던 두 남자도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두 남자 중 한명은 60은 거뜬히 넘고, 머리숱이 많이 부족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다.

악마는 어디선가 나타난 확성기를 입에 대며 커다란 날개를 짹 펼쳤다. 높이 날아오른 그는 우리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제가 미리 전송해 드렸으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아시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의 말은 진실이었는지 그들은 나와 달리 순순히 수긍하는 얼굴이었다. 뻔히 바라보는 원수들은 전혀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 기억도 못하는 것일 거다. 그들은 나와 달리 신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한 상태니까.

하지만 역시 머리는 인정해도 마음은 인정하지 못하는 듯하였다. 군복을 입은 남자는 두렵다는 표정으로 침묵을 유지하다 이내 입을 열었다. 악마는 그 어느때보다 순수하게 웃으며 그의 질문을 들어주었다,

“여기는 지옥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지옥이죠.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아~주 관계가 깊은 분께서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럼 규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시간은 총 24시간. 악마는 나에게 작은 단점을 건네주었다. 규칙은 간단했다. 이 것으로 내가 상대를 찌르면 찔린 당사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나는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찌르기가 가능하고, 내가 두 명을 전부 찌르면 그 즉시 되살아난다고 한다.

대신 추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찌를 수가 있는 시간은 12시간 이후부터이며, 그들은 나에게 그 어떠한 위해도 가할 수가 없다. 나를 포박하든, 위협하든 내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나에게 전체적인 선택권이 있는 상태였고, 그들은 이가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듯하였다.

“이 분은 아~주 착하신 분이여서 말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실수를 하셨죠. 당신들은 또 다른 임무는 이분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현생에도 큰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것만 알아두시죠.”

부드럽지만 위압감이 가득한 목소리에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악마는 행운을 빈

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이제 이 큰 저택에는 우리 셋 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와 평생의 원수 둘 만이 이 공간에 남게 되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의자에 앉았다. 긴 침묵 속에서 나는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로 주름이 가득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주름은 결코 피곤함, 혹은 일생의 힘듦으로서 온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들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훨씬 혈색이 좋았고, 훨씬 젊어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쯤 되면 궁금할 것이다. 이들이 왜 내 원수인지. 이들은 1980년 5월 18일, 나중에는 광주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린 사건에서 내 부모님을 죽인 군인과 그를 지시한 한 정치인 이었다.

“그 일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저희 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여서 말이죠.”

그들은 언제나처럼 인위적인 웃음을 지었고, 그 모습은 상당히 혐오스러웠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명체지만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브레이크 따위는 없는 폭주족들,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종족이나 다름없었다.

“저도 이미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저를 알고 있을 거고요. 저희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때를 말하면 확실히 기억하실 겁니다.”

“오, 그렇습니까. 언제 만났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한참 선거 활동을 하던 중이었을 때 5.18 추모 공원에서 말이죠.”

일부러 밝게 웃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반대로 씩어 들어가듯이 굳어 간다. 아마 내가 누군지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 홍보를 위해 억지로 추모 공원에 갔다가 욕을 한바탕 먹었으니까. 그리고 추모 공원이라는 점에서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게 되었다.

나는 단검을 집은 채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저 머리에 검을 쏘시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놓고 드러나고 있었고, 그 표정이 묘한 쾌감을 가져다주었다.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 이름을 말해봐. 그때 모든 유족들을 기억해 주겠다며.”

“.....”

“왜 말이 없어? 그럼 내 아버지 이름이라도 말해봐. 왜 말이 없어? 왜 말이 없냐고?”

“죄... 죄송합니다!”

그들은 냐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았다. 힘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야속했다. 현생에서는 한 번 때리기는커녕 직접 만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놈들이었다. 근데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저 한 없이 약한 인간이었다. 아니 인간이라고 부르는 민망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다.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까? 아니면 야속해해야 하는 것

일까? 평생을 슬퍼하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슬픈 삶에 대한 보상을 죽은 후에야 받다니... 야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하였다.

“나는 너희가 정말 싫어. 알고 있겠지?”

“지당하십니다.”

“그렇지? 그러니 게임을 할 거야.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내 아버지를 기억해 내거나 내 마음을 돌려봐. 살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든가.”

그들은 곧바로 나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다. 둘 다 돈으로 나를 회유하였다. 한 명은 커다란 건물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한명은 아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다짐하였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혹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긴 하였다. 다시 되살아나도 그 힘든 삶이 계속되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편에서 일어난 분노 때문에 이 조건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둘 중 그 누구도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해 먼저 사과하지도 않았다.

역시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와도 바뀌지 않는 듯하다. 아, 이미 죽었지. 내 말은 유일한 희망의 와도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이다. 차라리 아까의 악마가 더 착하지 않을까? 이 인간이라는 악마들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했다.

“역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 으아악!”

더 이상 이들의 말도 듣기 싫었다. 이곳은 죄를 지어도 신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지금껏 숨겨왔던 분노가,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본성이 튀어나왔다. 나는 들고 있는 검으로 그들을 찔렀다. 아직 이 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고통을 주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피로 흥건해진 바닥과 붉게 물든 하얀 공간. 아픔에 몸서리치는 이들은 이미 죽었기에 죽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였다. 절대적인 권력이 이런 것일까? 그 누구도 건들이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들은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난 이들에 비해 커다랗고 범접할 수가 없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작은 이유는 쾌락과 함께 나 자신이 신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표정은 칼이 박힐 때마다 일그러지기를 반복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에게서 최고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쾌락은 잠시 뿐이었다. 지옥이라는 곳에서 이들은 영원히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럼 뭐하는 가? 이미 우리는 죽었고, 곧 시간도 끝날 텐데.

칼로 찌를 때마다 생각나는 이 의문과 함께 점차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에서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마 지금 죽을 듯이, 아니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아플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픔을 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아픔. 살이 찢어지고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만 계속해서 느껴지는 고통은 지옥 그 자체이다.

이를 인지한 순간 나는 칼을 떨구었다. 그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함께 떠오르는 각인된 공포가 손을 멈춘 것이다. 그들이 죽을 듯이 미운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 악마 같지 않은가? 나는 복수가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이 녀석들처럼 악마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겠어? 그 사람들은 이 고통에 수 백 수 천 배를 안은 채로 살아왔어. 가족을 잃는 다는 감정 말이야. 그건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듯한 기분이라 더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항상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라 더 이상 고통을 만들 수가 없었다. 내가 이들을 육체적으로 괴롭힌다면 이들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영화에서나 불법한 의문이었는데 막상 실체가 되니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의 상처는 빠르게 치유되었다. 우리는 그 이후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로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앞으로의 그들의 처신을 생각했다.

내가 그들을 찌른다면 그들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지옥에서 훨씬 고통스럽고 두려운 생활을 영원히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만 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영원이란 단어는 조금 심한 듯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을 살려줘야 하는 것일까? 지금의 일을 당했으니 아마 표면적으로든 진심으로든 그들의 행동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 인생과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했다.

우리는 그 이후 한참을 말을 섞지 않았다. 녀석들은 간간히 나에게 아부를 떨려고 했지만 있는 데로 무시했다. 지금 내 마음은 마치 징검다리에서 있듯이 어디로 쏠릴지 모른다. 저 거지같은 얼굴을 다시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칼을 들 것 같았다.

“어이쿠 한바탕 하셨군요.”

어느덧 타이머의 시간이 3분의 1이 지날 때쯤 악마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시 확성기에 입을 갖다 대었고, 각자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스크린을 만들어 주었다.

“여기서 추가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크린에는 한 어린아이가 모습이 보였다. 나이는 대략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집이 꽤 잘 사는 지 옷부터 신발까지 상당히 값이 나가보였다. 아이는 행복하다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여러분들의 아래에 각자 포인트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살아생전 당신들이 쌓은 선행 포인트이죠. 그리고 당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곧 있으면 죽을 불쌍한 인

간들입니다.”

그의 설명은 이러했다. 오늘 하루 이들은 어떠한 경우로든 죽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사용하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행운. 즉 다시 말해 선행이 행운이 되는 것인데 당신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들의 행운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관없습니다. 그저 심심하실까봐 놓아 드린 거죠. 제가 명색에 악마 아닙니까?”

그래... 참 악마다웠다. 대놓고 희생을 강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을 방관하는 꼴이라니...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자신의 행운에 대한 이익을 원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방관하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한참을 속으로 악마를 욕하던 도중 문득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살며시 허리를 숙여 속삭였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 대머리의 손자입니다. 당신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이죠. 당신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닌 그저 순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신이 보아도 순리를 건들이지 않는 쪽이 옳은 것이죠.”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죠?”

“죄책감을 덜라는 것입니다. 전 악마이지만 솔직히 요즘 누가 악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당신들의 삶이 악마처럼 살지 않으면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끝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나는 뻘뻘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원수의 손주.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이것이 신체적인 공격보다 최고의 복수 수단일 것이다. 그도 나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했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있고, 나와 완전히 반대되는 풍족한 삶을 산다. 나와 달리 아버지도 있고, 나와 달리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 받지도 않을 것이다. 나와 달리 대학도 갈 것이고, 나와 달리 어머니가 아프면 바로 바로 병원에서 최고의 진료도 받을 것이다.

아마 대학교도 나오고, 친구 역시 많이 사귀게 될 거다.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은 나와 달리 말 그대로 미래가 실크로드나 다름없다. 지금 지독한 지옥에서 앞으로의 삶이 없는 나와는 달리 행복하고 오랫동안 멍멍거리면 살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인생은 정해진다. 나는 지옥, 아이는 천국인 삶이다. 지옥같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고통도 아니기에 나에게 죄책감은 없다. 그래.. 그저 보지 않으면 충분하다. 보지 않으면... 충분... 할까?

“역시 안되겠지?”

쭙쭙한 웃음이 저도 모르게 흘러 나왔다. 아무리 원수의 손주라고 해도 방관할 수가 없었다. 아니 원수의 아들이라고 해도 똑같았을 것이다. 이 아이는 잘 못이 없다. 아무리 죄가

많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잘 못을 하지는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정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죄를 아이가 짊어질 이유는 없다.

이 아이를 방관하고 괴롭히는 것은 그저 화풀이를 하는 용도이다. 새로운 생명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우리 같은 어른들은 이들을 지켜줘야 하니까. 비록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는 모르겠고, 자신의 부모를 닮을 수도이겠지만... 그러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가족의 잘못을 사과할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내 포인트는 총 1000으로 적은 건지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한 번, 두 번, 세 번.... 차에 치일 뻔한 걸, 머리에 화분이 떨어지는 것을 구해주고 또 구해주었다.

아이는 오늘 몇 번이고 죽을 뻔하였다. 하지만 마침내 내 포인트가 0이 된 순간 아이는 죽음이라는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쓸쓸하면서도 묘하게 느껴지는 뿌듯함에 나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다. 그 처참했던 분노가, 그 뜨거웠던 울분이 한 순간 녹아내려간다. 누군가가 내 덕분에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작은 위로를 넘어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듯하였다.

“이런 결국 선택을 택하신 건가요?”

어느 순간 나타난 악마는 아쉽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악마이니 선택보다 악을 좋아할 것이다.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아까의 분노에서의 해방감과 복수에 대한 쾌감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충만해진 마음은 그런 달콤함을 떨쳐 내기 충분했다.

“앞으로 타이머는 1분 남았습니다. 정말로 찌르시지 않을 겁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을 들은 후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찌르지는 않는다. 영원한 고통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괴로웠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용서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

그들 역시 내 말을 들은 후 눈빛이 조금 바뀌었다. 고마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것일까? 여전히 용서는 안되었지만 뭐,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그렇군요. 시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분들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끝났으니 말씀드리죠. 당신의 어머니께서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말이죠.”

“네?”

....이게 무슨 소리지? 잠시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머리가 복잡하다. 조금만 정리할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악마는 멈추지 않았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리지 않았죠. 저 두 분이.”

“그게 무슨...”

“저 두 분 중 한명이라도 포인트를 썼다면 살아났을 겁니다. 아니, 살아남을 넘어 회춘했을 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분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350포인트에서 고작 50포인트가 아까워서 말이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들은 당신의 어머니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돌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혼란스러웠다. 난 그들을 살려주었다, 게다가 한명은 손자도 살려주었다. 하지만 저들은 나를 배신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탐욕과 거짓과 악으로 가득 담긴 악마 그 자체이다. 검은 심연의 속에서 더러운 악을 먹고 사는 악마 말이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아무리 두 명이라고 해도 이미 늙은 노인네들 충분히 힘으로 이길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 내 앞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악마였다.

“시간은 끝났습니다.”

빙긋 웃는 그는 내가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녀석들은 빙긋 미소를 짓는다. 마치 사냥에 성공한 사마귀같은 미소였다.

“대체 왜 그랬어.. 왜 난 너희를 살려줬는데!”

“웃기고 있네! 네가 찢었던 거는 기억 안나지? 살아나면 딱 기다려 곧 네 어미 곁으로 보내줄 테니까.”

아 그렇구나. 이미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는 없는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사람이란 것은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남을 희생시킨다. 그리고 남을 희생시키며 올라간 놈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 지구 자체가 지옥이었고, 인간 자체가 악마였다.

역겹다. 미치도록 역겨워서 내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어쩌면 녀석들을 지옥에 처박을 수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름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지옥’이었을까? 적어도 확실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현실이나 이곳이나 ‘지옥’이란 점은 변하지 않았다.

“제가 말했죠? 후회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말했죠. 당신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된다고.”

언제나처럼 똑같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악마가 내게 묻는다. ‘당신은 왜 죽었나요? 당신의 어머니는 왜 입원했나요?’라고... 그리고 기억났다. 나는 추락사로 죽었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자살. 어머니의 입원으로 생겨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삶을 포기하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것이 나의 잘못, 즉 죄이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내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 저질러버린 용서할 수가 없는 커다란 죄. 그리고 이 악마는 내게 말하였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모두 지옥으로 간다고....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웃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검을 들었고, 그대로 내 심장에 꽂아 넣었다.

그 순간 땅이 쪼개지며 검은 무엇인가가 우리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다. 녀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 달라 외쳤고, 나는 그저 악마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는 끝까지 나를 바라보았고 나와 마찬가지로 웃고 있었다. 검은 지옥이 그들을 삼키 후 악마는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커다란 날개를 접으며 앉았다.

“착한 사람이 거짓으로 통하고, 선이 나약함으로 통하는 곳. 악마보다 더한 악마가 살아가고, 악마보다 더한 악마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돈이라는 권력으로 지배하는 곳. 과연 어디가 지옥일까? 적어도 몇 남아 있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지옥이 아닐 거야.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곳이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니까.”

악마는 생각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지옥은 적어도 현실보다 좋을 거라고. 누군가의 희생을 원하고, 누군가의 희생만이 있는 현실에 비해 이곳은 확실한 탈출구가 존재하니까. 심지어 새로운 인생을 주기도 하니까.

과연 지옥을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 악마? 아니면 신? 과거의 사람들은 죄를 벌하기 위해 신이 만들었고, 인간의 고통을 즐기기 위해 악마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 뜻은 바뀌었다.

이 지옥은 인간이 만들었다. 악마같은 존재가 떨어지고, 악마같은 존재로 순수한 인간마저 타락하는 현실이라는 지옥에서 단지 장소를 옮긴 것이 전부니까.

악마는 지옥에 있지 않다

3-9 백*민

사람을 살리는 지옥

3-9 백*민